영광군 '바다 드림팀' 출범…해양수산 발전 견인

자문·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정책 개발해 국비확보 연계

영광 해양수산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기구가 출 범했다.

영광군은 지난 30일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자문그룹 7명과 전문가그룹 80명으로 구성 된 '바다드림팀' 발대식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준성 영광군수는 바다드림팀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남도, 수협, 어촌 계 등 16개 분과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을 주재했다.

논의된 연구과제는 칠산 해역 관광유람선 경제・ 현장분석, 여객선 완전공영제 경제·현장분석, 백수 해안도로 관광형 등대 설치, 향화도항 해양관광활 성화,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해상풍력 해 상교통 안정성 확보, 불갑천 어도 설치, 갯벌체험어 장 활성화 등이다.

바다드림팀은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시 관행적



지난달 30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영광군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바다드림팀' 발대식이 열렸다.

〈영광군 제공〉

으로 이뤄져 온 용역 위주의 발표 형식에서 탈피해 분과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팀 구성은 영광군의 해양수산 행정의 미래 비전 제시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해양수산 관련 전직 관료 출신 자문그룹과 산업현장의 생생 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그 룹 등 투 트랙 구조로 이뤄졌다.

이들 자문위원과 전문가 위원은 한자리에 모여

제안 내용을 검증하고 도출된 과제는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정책으로 건의해 국비 확보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바다드림팀은 발대식 토론회에서 최종 검증을 마 친 '참조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사업'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 신청서를 이달 전남도

투입해 스마트 양식 시험장(300억원)과 배후 부지 (100억원)를 조성해 노동집약적인 기존 양식 방법 에서 벗어나 미래 양식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 는 게 목표다.

김준성 군수는 "정책자문과 소통 강화를 통해 해 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량을 키워 영광군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를 경유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비 220억원을 포함한 총 400억원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완도 소안도서 노지 감귤 수확 한창

완도군 소안도에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소안도 노지 감귤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수확을 하고 올해 생산량은 120t으 로 예상된다.

소안도에서는 2009년 노지 감귤 작목반을 결성 해 현재 70 농가, 25ha에서 노지 감귤을 재배한다. 소안도 노지 감귤은 풍부한 햇빛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다.

또 과실의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돼 저장 기간

특히 이달 초에 소안도 감귤 작목반 전체가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을 획득해 감귤 의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한 감귤을 소비 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은 감귤 명품화 사업을 통해 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 산하기 위해 노지감귤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 장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은 대흥사 관광권역인 삼산면 유스호스텔 일원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해 산림휴양 기능을 갖춘 산 림유역을 조성했다.

해남군·롯데렌탈, 차량 등록 협약…"지방세수 확충 기대"

해남군은 지난 29일 군 청 상황실에서 롯데렌탈,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렌트 차량 등록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 남군수와 이승연 롯데렌

탈 경영관리본부장, 정건 기 서남해안기업도시개 발 부사장이 참석해 렌트 차량 등록을 위한 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롯데렌탈은 장기렌트 신규 차량 연 간 2만~3만대를 해남군에 등록할 계획이며, 서남 해안기업도시개발에서는 기업도시 내 유보지 5만 평을 차고지 부지로 롯데렌탈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차량 등록, 번호판 발급 등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해남군은 연간 60억~100억원 이 상의 지방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삼산면 유스호스텔 일원 물놀이장 조성

국비 11억 들여 침식 막고 목교·산책로 개설

해남군은 대흥사 관광권역인 삼산면 유스호스텔 일원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해 산림재해에 강하고 산림휴양 기능을 갖춘 산림유역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 방지, 수원 함양 등 다 기능적 복합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생산기능을 최대 한 발휘하게 하는 사업으로 치산, 물관리, 경관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해남 유스호스텔은 상부의 경사가 심한 계곡부가 정비되지 않아 토양침식 및 토석 유실이 진행되면 서 집중호우 시 하류 상가지역에 피해를 줬다.

해남군은 상부에 석축을 쌓아 계류의 침식을 방

www.gcdh.or.kr

지하고, 계류를 활용한 물놀이장과 목교, 산책로 개 설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2019년 산림유역관 리공모사업에 선정,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들 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유역관리 사업장에 여름피서객 등 관 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수공간 및 주 민편익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사업은 주민의견을 설 계에 반영, 완성도와 함께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 노 력했다"며 "내년에도 마산면 상등리 도유림 일원에 산림유역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모도 섬사랑2호 취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보조항로인 완 도~모도 항로에 지난 30일부터 101t급 차도선 섬사랑2호가 취항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완도~모도 항로는 섬사랑5호가 완도~ 덕우 항로와 함께 운항하면서 보조항로 여객선 의 한정된 운항횟수와 수송능력 등으로 섬 주 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섬사랑1호를 대체해 새롭게 건조된 섬사랑2 호는 완도~모도 항로의 중간기착지인 소모도, 모소, 모동을 경유해 1일 3회 왕복 운항한다.

이로써 완도~여서도(섬사랑7호) 등에 이어 완도~모도, 완도~덕우 항로에도 각각 1척의 차 도선이 취항하는 1항로 1척 운항체계가 도입 됐다.

목포해수청은 섬사랑2호취항으로 낙도지역 운항시간의 단축, 수송수요 충족, 내륙 체류시 간 확보 등 해상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멸종위기종 '홍도서덜취' 신안 무인도서 무더기 발견



신안군은 무인도서 생태조사 중 한국 특산종 인 홍도서덜취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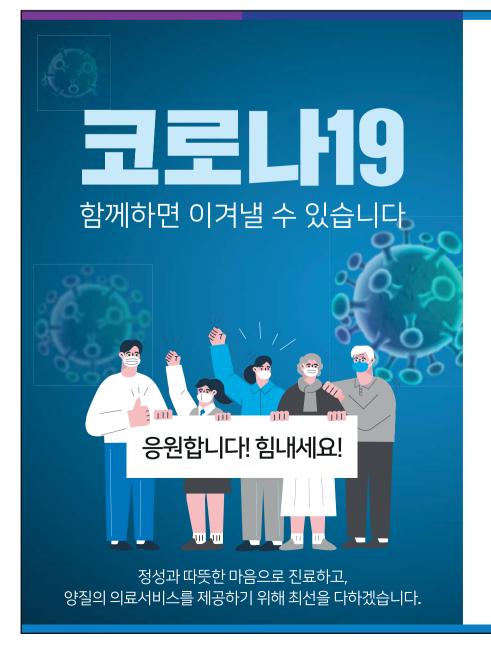
최근 신안군 자체 조사팀이 무인도서 조사 중 한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었던 홍도 서덜취 5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신안에서 자생하는 홍도서덜취 자생지는 10 곳 미만이며 개체 수도 많지 않다.

2001년 홍도에서 몇 개체 발견됐을 뿐 자취 를 감춘 홍도서덜취는 2014년 신안 가거도에 서 20여 개체가 확인됐다.

홍도서덜취는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곤추 서고 위쪽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높이 50 ~70cm이다. 꽃은 9~10월에 피는데, 가지 끝 에서 발달한 두상화서에 무리지어 피며 전남 신안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우암의료재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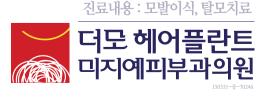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 급 실 062.**602-6119**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www.ct119.co.kr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급 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 (세정아울렛 옆) 대표전화 062.223-5824